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의 문화횡단적 실천*

– 남한문학사·북한문학사·자국문학사라는 세 겹의 프리즘 –

이 선 이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를 남한문학사, 북한문학사, 자국문학사와 비교하여 서술 양상을 살핌으로써, 이들 텍스트에 나타난 문화횡단적 실천을 살피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는 약 25종이며, 이 가운데 한국근현대문학사는 약 16종이다. 저술 목적으로 볼 때, 연구용 문학사보다는 교재용 문학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시각과 서술내용으로 볼 때, 남한문학사를 수용한 경우와 북한문학사를 수용한 경우 그리고 남북문학사를 함께 수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대표적인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 인식과 서술 양상을 남한문학사, 북한문학사, 중국문학사와 비교한 후, 의미의 이동과 생성의 지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문학사 인식과 서술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전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의 근현대문학사는 서양문학의 영향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문학의 영향을 간과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시각 둘째, 북한문학사를 주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통일문학사 기술의 한 가능성을 제시한 점 셋째, 순수문학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문학의 대중성에 대한 강조와 다양한 매체와 연관된 작품을 수용하는 시각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이 그것이다.

주제어 : 해외 한국문학사, 문화횡단적 실천, 한국문학사, 북한문학사, 조선문학사, 중국문학사, 한국학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5939). 또한 이 논문은 2017년 8월 1일에 경희대학교에서 韓·中·日 국제학술대회로 개최된 “해외 한국문학사의 문화횡단적 연구: 중국과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를 중심으로”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였음.

I. 서론

해외에서 외국문학사로 저술된 한국문학사에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입장에 따라 우리와는 상이한 인식과 서술방식이 드러난다. 중국의 경우, 절반의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로서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통분모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지만,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해 우리의 근현대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인식의 균열과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차적으로는 남북한의 인식차가 충돌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중국의 자국문학사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상당한 굴절과 변용, 선택과 배제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내용상의 단순 비교를 넘어서는 다층적이고 생산적인 읽기가 요구된다.

이들 해외 한국문학사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리디아 리우가 비서구 지역의 근대성이 지닌 복잡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착안한 개념인 ‘언어횡단적 실천’(translingual practice)¹⁾은 의미 있는 사유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리우의 이 개념은 탈식민주의의 대표적인 논자인 호미 바바의 ‘혼종성(hybridity)’이나 에드워드 사이드의 ‘이동하는 이론(traveling theory)’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되었다. 리우는 문화 간 이동에는 기존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취하고 있는 표면적인 영향관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의미의 잉여와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목하였다. 특히 문화 간 이동의 대표적인 양상인 번역과정에 주목하면서 기존 번역학이 개념어로 사용한 원천언어(source language)와 목표언어(target language)는, 번역을 단순히 가정된 등가성의 원리로 파악하고 있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용과정을 제대로 설명해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문화 간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능동성에 주목하며, 손님언어(guest language)와 주인언어(host language)라는 용어로 기존의 개념어를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타자에 대한 환대의 윤리를 환기시키는 이 개념어를 통해 그는, 손님언어가 주인언어의 현시사정에 의해 창안되는 문화적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러한 리우의 논

1) 리디아 리우(劉禾), 민정기 역,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2005, 17-88쪽, 참조.

의를 문화 간 이동에 적용해 보면, 기존 언어번역의 자리에 문화번역을 대체시키고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성과 변용의 양상을 ‘문화횡단적 실천(transcultural practice)’으로 명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라는 자장 안에서 저술되어 온 자국문학사와는 달리 외국문학사로 저술되는 해외의 한국문학사는 리디아 리우의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낼 때, 우리가 놓쳤던 인식의 열린 지점들을 발견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리우의 문제의식에 기대면,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에 대한 인식은 문화 간 교섭의 장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내용의 동이(同異)를 확인하는 가정된 등가성의 원리를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될 때, 중국의 한국근현대문학사는 남북한문학사와 자국문학사와의 교섭과정에서의 의미의 이동과 생성이 수행되는 문화횡단적 실천의 장으로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과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의 문화횡단적 실천 양상을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굴절되고 생성되는 잉여의 의미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근현대문학사의 출간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 가운데 남한문학사의 인식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와 북한문학사의 인식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 남북한문학사의 인식과 내용을 동시에 수용한 경우로 대별하여 이들 문학사가 어떤 문화횡단적 실천을 보여주는지 살피고자 한다. 분석 텍스트로는 남한문학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김영금의 『韩国的文学』(2009), 북한근현대문학사를 다루고 있는 허젠후아(何镇华)의 『朝鲜现代文学史』(2008), 남북한의 문학사를 균형 있게 수용하고 있는 김병민(외)의 『조선·한국당대문학사』(2000)와 박은숙(외)의 『韩国-朝鲜近现代文学史』(2016)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텍스트가 문학사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과 서술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²⁾ 특히 이들 문학사가 남북한문학사 및 자국문학사와 어떠한 문화횡단적 실천 양상을 보이는가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문화횡단의 실천에 내포된 정치적 무의식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문학사는 과학원문학연구실의 『조선문학통사(하)』와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가 펴낸 『조선

2) 책 제목은 출간 상태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집필언어는 표1)에서 밝혔다.

문학(2-5)』(1977-1981) 및 사회과학원주체문학연구소 편 의 『조선문학(7-16) (1991-2012)』를, 남한문학사는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2002)를 중국문학사는 후양시우지(黃修己)의 『中国现代文学发展史』(1988)와 천쓰허(陳思和)의 『中国当代文学史』(1999)를 참고하고자 한다. 참고항으로 삼는 이들 문학사는 중국의 한국근현대문학사 집필자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참고 문헌에 목록에 올린 경우가 다수이며, 명시적인 영향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대표성을 갖춘 문학사라는 점에서 비교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II. 중국의 한국근현대문학사 저술 현황

지금까지 중국에서 집필된 한국문학사³⁾는 대략 25종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정판으로 재출간하거나⁴⁾ 한국어로 쓴 텍스트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경우⁵⁾를 제외하면 약 22종이 발간되었다. 중국의 우리문학사 집필자는 조선족 학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집필 동기는 대학의 교재용이 많다. 또한 집필언어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한국어로 쓴 텍스트가 많지만 중국어로 집필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어로 쓰거

3) 한국문학사라는 용어 사용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남한문학사와 북한문학사를 한국문학사와 조선문학사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들어 한국과 조선을 병용하면서 남북한 문학을 동시에 인식하는 중국 학계의 입장은 현재의 중국 학계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남한의 경우, 북한의 문학사를 조선문학사로 지칭하지 않으며, 실제로 이 용어는 조선왕조기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에서 저술된 우리문학사 중에는 조선문학사라는 제목을 사용하지만 남한문학사의 시각과 내용을 반영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용어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민족 단위문학사를 하나의 이상으로 상정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문학사를 우리문학사로 통칭한 민족문학사연구소의 입장에 크게 공감하면서 문맥에 따라서는 우리문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본 연구가 국제비교연구이고 연구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학사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4) 韦旭昇의 『韩国文学史(改訂版)』와 김영금의 『新编韩国文学史』가 여기에 해당된다.

5) 김병민(외)의 『朝鮮·韩国当代文学史』가 여기에 해당된다.

나 한국어로 쓴 문학사에 중국어 번역본을 수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문학사 서술대상이 되는 시기만을 놓고 볼 때, 고전문학사만을 다룬 경우가 5종이며 고전과 근현대를 포괄하고 있고 경우가 9종이며 근현대문학사만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8종이다. 한국근현대문학사를 다룬 텍스트로는 박충록의 『조선문학간사』, 리해산·채미화의 『남조선문학개관』, 김병민의 『조선문학사 : 근대현대부분』, 김춘선의 『한국조선당대문학사』, 김병민(외)의 『조선·한국당대문학사』(2000), 김병민(외)의 『朝鮮·韓國當代文學史』(2004), 한위성의 『韓國文學簡史與作品選讀』, 허편후아의 『朝鮮現代文學史』, 김영금의 『韓國的文學』, 윤운진(외)의 『韓國文學史』, 김영금의 『韓國文學簡史』, 김영금의 『朝鮮-韓國文學史』(上·下), 김명숙의 『조선근현대문학사』, 김춘선(외)의 『한국현당대문학사』, 임국웅의 『한국문학약사』, 윤운진(외)의 『韓國文學史要』, 박은숙(외)의 『韓國-朝鮮近現代文學史』, 김영금의 『新編韓國文學史』가 있다. 이 가운데 김영금의 『新編韓國文學史』는 2009년에 펴낸 『韓國文學簡史』를 수정 및 보완 없이 재출간하면서 제목을 교제한 경우이고, 김병민(외)의 『조선·한국당대문학사』(2000)가 중국어판으로 출간된 것이 『朝鮮·韓國當代文學史』(2004)라서 이를 제외하면 총 16종이다. 이 밖에도 드문 일례로 리해산의 『조선한문학사』(1995)와 같이 특정 주제로 저술된 예도 없지 않지만, 아직 시사나 소설사와 같이 개별 장르나 주제만을 다룬 문학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에서 우리문학사가 저술된 최초의 예로는 1985년에 발간된 허문섭의 『조선고전문학사』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80년대에 3종이 저술되었던 우리문학사가 1990년대에는 4종이 더해졌고, 2000년대 이후에는 15종이 더해지면서 급격한 양적 확대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남한문학사와 북한문학사를 함께 기술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학에 대한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관심 확대와 함께, 대학에 한국문학 관련 학과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들 텍스트는 남한 학계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 무엇보다 중국의 우리문학

6) 중국에서 저술된 우리문학사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정현숙의 「북한, 중국, 일본의 한국현대문학사에 대한 인식(1)」(『인문과학연구』 제21집, 강원대학교 인문과

사 발간 현황을 검토하고 문학사 기술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요하는 대목이다.

해방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과 교류해 왔고 한중 수교 이후에는 남한과도 교류를 진행하면서 남북을 동시에 조망하는 의미 있는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교류사와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의 우리 문학사에 대한 인식과 시각에도 가감 없이 투영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의 우리문학사는 첫째, 남한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와 둘째, 북한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남북의 시각을 두루 담아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예에 해당되는 경우가 김영금의 『韩国的文学』, 윤운진(외)의 『韩国文学史』, 김춘선(외)의 『한국현대대문학사』, 김영금의 『韩国文学简史』 등이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로는 박충록의 『조선문학간사』와 허전후아의 『朝鲜现代文学史』를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인식과 시각을 동시에 수용한 경우가 김병민의 『조선문학사 : 근대현대부분』, 김춘선의 『한국-조선당대문학사』, 김병민(외)의 『朝鲜·韩国当代文学史』(2004), 김영금의 『朝鲜-韩国文学史』(上·下), 박은숙(외)의 『韩国-朝鲜近现代文学史』 등이다. 남북한의 시각을 동시에 수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서술대상을 남북한의 문학사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를 단순 병합한 경우나 문학사의 시기구분은 남한문학사의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서술대상은 북한문학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남한문학사에서 대상으로 삼는 작품을 다루면서도 이를 기술하는 방식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을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나 남한문학사의 인식과 서술방식을 주로 하면서 북한문학사의 시각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이한 양상은 개별 텍스트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연후에야 그 차이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양상 중에 남한문학사 수용, 북한문학사 수용, 남북문학사 수용이라는 세 양상을 중심

학연구소, 2009), 소인호의 「중국 조선문학사의 비교 연구: 서사문학을 중심으로」(『우리어문연구』 제41집, 우리어문학회, 2011), 이승운의 「한국문학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 『조선-한국당대문학사』를 중심으로」(『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이선이(외)의 「중국의 한국문학사 저술 현황과 한국현대문학사 서술양상」(외국문학연구 4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등이 있다.

으로 중국의 한국근현대문학사에 대한 인식과 서술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간 연도	대상 시기	언어
허문섭	『조선고전문학사』	료녕민족 출판사	1985	상고~18세기	한국어
韦旭昇	『朝鲜文学史』上·下	북경대학 출판사	1986	고대~19세기	중국어
박충록	『조선문학간사』	연변교육 출판사	1987	원시~1945년	한국어
리해산· 채미화	『남조선문학개관』	연변인민 출판사	1992	19세기 후반~ 80년대 말	한국어
김병민	『조선문학사』 (근대현대부분)	연변대학 출판사	1994	19C말~1945년	한국어
문일환	『조선고전문학사』	북경민족 출판사	1997	상고~19세기 말	한국어
허휘훈· 채미화	『조선문학사 : 고대중세부분』	연변대학 출판부	1998	원시~19세기	한국어
김병민 (외)	『조선·한국당대문학사』	연변대학 출판사	2000	1945년~1980년대	한국어
김춘선	『한국조선당대문학사』	북경민족 출판사	2000	1945~1980년대	한국어
김병민 (외)	『朝鲜·韩国当代文学史』	근문출판사	2004	1945년~1980년대	중국어
한위성	『韩国文学简史与作品选读』	대련이공대학 출판부	2006	고대~1980년대	중국어
韦旭昇	『韩国文学史』(改訂版)	북경대학 출판사	2008	상고~19세기 말	중국어
何镇华	『朝鲜现代文学史』	중앙편역 출판사	2008	1900년~1967년	중국어
윤윤진 (외)	『한국문학사』	상해교통대학 출판사	2008	상고~1980년대	한국어
김영금	『韩国的文学』	북경대학 출판사	2009	상고~21세기 초	한국어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간 연도	대상 시기	언어
김영금	『韩国文学简史』	남개대학 출판사	2009	상고~21세기 초	중국어
김영금	『朝鲜-韩国文学史』 (상·하)	外语教学与 研究出版社	2010	상고~20세기	중국어/ 한국어
이암 (외)	『朝鲜文学通史』 (상·중·하)	사회과학문헌 출판사	2010	상고~19세기	중국어
김명숙	『조선근현대문학사』	료녕민족 출판사	2010	19세기 말~1945년	한국어
김춘선 (외)	『한국현대문학사』	민족출판사	2012	19세기 말~ 1990년대	한국어
임국웅	『한국문학약사』	흑룡강조선 민족출판사	2013	상고~1970년대	한국어
김춘선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북경민족 출판사	2013	상고~1990년대	한국어
윤운진 (외)	『한국문학사요』	연변대학 출판부	2015	상고~1980년대	한국어
박은숙 (외)	『한국-조선근현대문학사』	外国教育与 研究出版社	2016	개화기~1970년대	한국어
김영금	『新编韩国文学史』	남개대학 출판사	2016	상고~21세기 초	중국어

표 1)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 목록(2017년 기준)⁷⁾

Ⅲ. 중국의 한국근현대문학사에 나타난 문화횡단 양상

중국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문화권역 안에서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문학에 대한 상당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의 이질적 체제 유지로 인해 상이한 인식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서

7) 이 목록은 이선이(외)의 「중국의 한국문학사 저술 현황과 한국현대문학사 서술양상」(외국문학연구 4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에서 제시한 것을 보완하고 2013년 이후에 발간된 목록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로 다른 체계를 표방하고 있는 남북과 동시에 교류를 진행하고 있어 남북한에 대한 인식이 공존하면서도 길항하는 두 측면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의 인식과 서술양상의 실재를 살피고 이를 남북문학사와 자국문학사인 중국문학사에 대한 인식 및 서술양상과 비교하며 의미의 이동과 생성의 지점들을 살피고자 한다.

1. 김영금의 『韩国的文学』 분석

김영금⁸⁾은 『韩国的文学』(2009), 『韩国文学简史』(2009), 『朝鲜-韩国文学史』(상·하)(2010), 『新编韩国文学史』(2016)를 연이어 발간하면서 교재용 한국문학사 집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조선족 학자이다. 이 가운데 『韩国的文学』과 『韩国文学简史』(2009)는 남한문학사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주의 미학과 언어예술 미학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韩国的文学』는 대학교육의 강화를 위해 진행된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교과서라는 점에서 중국에서 한국문학사를 인식하는 방법을 살필 수 있는 텍스트이다.

이 문학사의 서술대상이 되는 시기는 고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이다. 하지만 시기별 서술 분량으로 볼 때, 근현대문학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총 16장 가운데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논의한 총론 부분과 고전문학사를 다룬 부분은 3장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개의 장은 근현대문학사를 서술대상으로 삼고 있다. 책의 서술체계는 각 시기의 주요 작가와 대표작을 중심으로 당대의 문학적 경향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소설의 주요 경향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으며, 특정 시기는 주제나 경향별로 기술하고 또 다른 시기는 십년 단위로 나누어 주요 작가와 작품을 기술하고 있다. 이 문학사는 시대상황과 문학적 변화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시기의 주요 문학적 경향을 서술하고 있어서 각기 시대의 문학적 변화를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서 1970년

8) 조선족 학자인 김영금(金英今)은 1968년에 길림성에서 태어나 1991년에 연변대학교 조문학부를 졸업했다. 2005년에 白華 梁建植 文學 研究所 연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인민해방군외국어대학(낙양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까지의 문학이 두 장으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는데, 시의 경우, ‘이데올로기와 산업화시대의 한국시’라는 제목 하에 ‘①1960년대 시 ②1970년대 시’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기술한 반면, 소설의 경우 ‘이데올로기와 산업화시대의 한국소설’이라는 제목 하에 ‘①빛나는 사월과 자유의 좌절 ②민주주의의 성장과 문학적 실천 ③아버지 탐구와 훼손되고 파괴되는 삶’으로 구분하여 주제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비평문학과 희곡문학은 각각 별도로 하나의 장에서 다루는데, 서술체계는 주요 시기별로 기술하고 있다. 비평사의 경우, ‘①문건, 문첩과 해방기 비평 ②뉴 크리티시즘과 전후의 비평 ③창비, 문지와 1970년대의 비평 ④무크지운동과 1980년대의 비평 ⑤이념의 퇴조와 1990년대 이후 비평의 다양성’으로 나누어, 해방 이후의 평단상황과 주요 논쟁만을 다루고 있다. 이와는 달리 희곡사의 경우, 전통 민속극에서 1990년대 희곡을 순차적으로 8개의 하위시기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문학사에는 ‘한국의 수필문학’이라는 장이 설정되어 있으며, ‘①한국의 고전수필 ②한국의 근대수필 ③한국의 현대수필 ④한국의 ’수필의 날’이라는 하위 목차로 수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와 한국문학’이라는 장을 설정하여 새로운 형식실험 및 사이버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변화된 문학환경에 주목하고, 특히 인터넷소설에 대해 기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는 근현대문학사 기술 시기를 개화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잡고 있으며, 시기구분을 근대전환기(개화기)와 식민지시대, 해방기와 전후시기, 산업화시대, 민주화운동과 해금시기, 정보화시대로 나누고 있다. 『韩国文学简史』가 고전문학, 근대전환기문학, 당대문학으로 나누어 시, 소설, 희곡과 산문문학 순으로 체계성을 갖추어 한국문학을 논의한 반면, 이 책은 근현대문학사에 집중하면서 시기를 세분화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이 문학사가 한국현대문학을 자세히 기술하는 데 집필의 목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서술상의 특징을 문화횡단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문학사에는 문화 간 이동과 생성의 지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우선, 여기서는 중국문학의 영향을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 한국이나 중국은 서양이라는 타자에 의하여 강제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은 서양 근대문학의 전범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한국문학은 중국문학과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듯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근시안적인 파악이었다. 서양이라는 낯선 타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중국의 고전문학은 배경적인 전통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중국의 신문학은 한국문학과는 구별되는 외국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면서도 서양이나 일본문학보다는 친근한 것이었고 그래서 쉽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⁹⁾

우리의 근대문학 형성에 있어서 서양문학의 유입과 일본문단의 영향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의 신문학은 우리 근대문학의 형성에 있어서 서양문학이나 일본문학보다 친근한 것이므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구체적인 논거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저자가 근대 문인 가운데 ‘양건식’을 높게 평가라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시각이 친일문학에 대한 평가와 연관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에 평가될 만한 거의 유일한 작가로 양건식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그가 친일협의로부터 자유로운 작가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의 근현대문학사에서 ‘민족 해방을 노래한 향전문예’¹⁰⁾를 중심으로 문학사를 기술하는 서술태도를 한국근현대문학사 인식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태도는 서정주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친일인명사전』에 문인 35명이 수록되었음을 밝히는 것과도 내밀하게 연관된다.¹¹⁾ 즉 일제강점기의 한국문학에서 친일 문제를 강조하는 서술태도는, 향일의 전통을 강조하는 중국문학사의 인식이 문화횡단적 이동을 실천한 경우이다. 그러면서 이 문학사는 일본문학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중국문학과와의 영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다. 가령, 신체시에 대한 기술에서도 일본시의 영향

9) 김영금, 『韩国的文学』, 북경대학출판사, 2009, 36쪽.

10) 후양시우지(黄修己), 고대중국어문연구회 역, 『中国现代文学发展史』, 범우사, 1988, 479-524쪽, 참조.

11) 김영금, 『韩国的文学』, 북경대학출판사, 2009, 50-51쪽, 참조.

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고전문학에서 주요 갈래였던 한시가 한국근현대문학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관점을 강조하며 “한시는 지식인문학으로, 1920년대 한용운·정지용, 1930년대 이육사·조지훈 등에 이르러 현대시로 발전적 계승을 이룬다.”¹²⁾고 기술하기도 한다. 우리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국문학과 한문학이라는 두 층위에서 진행되던 흐름이 신문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문학의 단절을 겪었다는 서술방식은 보편적으로 수용된 바 있다. 즉 국문학과 한문학 모두가 신문학으로 수렴되는 과정은¹³⁾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는데, 이 문학사에는 이런 인식과 서술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또한, 이 문학사는 정보화시대의 다매체 환경에 주목하며 한국현대문학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 하에서 인터넷문학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문화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천쓰허(陳思和)가 『中国当代文学史』를 기술하면서 ‘매체시대의 문학’¹⁴⁾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다루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기술태도는 기본적으로 문학사회학적 입장과 문학의 대중성을 중시하는 중국문학계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의 이러한 인식과 서술태도는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동시대 문학환경의 변화에 사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한국문학계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문학사에 대한 인식이 한국근현대문학사 인식으로 횡단하는 한편, 이 문학사에는 한국의 근현대문학사의 인식과 서술방식이 변형과 굴절을 거쳐 수용되기도 한다.

이 문학사는 남한문학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자가 주요 참고문헌으로 삼고 있는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와 비교해 볼 때, 이 문학사는 권영민의 문학사를 수용

12) 김영금, 위의 책, 43쪽.

13) 이러한 문제의식은 임형택이 「한국문학사의 서술방향과 체계」에서 하나의 시안으로 제시한 한국문학의 체계이다. 그는 구비적 원시문학이 국문학과 한문학으로 분화되고 이것이 신문학으로 종합되었다가 남한문학과 북한문학으로 분화되는 한국문학사의 체계를 구상한 바 있다.(토지문화재단 편,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한길사, 2003, 39-40쪽)

14) 천쓰허(陳思和), 노정은·박난영 역, 『中国当代文学史』, 문학동네, 1999, 575-597, 참조.

하면서도 선택적 전유의 양상을 보인다. 권영민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시문학의 경향을 기술하면서 ‘제3장 산업화과정과 문학의 사회적 확대’라는 제목 하에 이 시기의 시문학의 경향을 ‘시정신과 일상성의 회복’으로 파악하고 ‘①민중시와 민중적 상상력 ②관념과 기법과 정서 ③시와 경험적 진실성’으로 세분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영금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이데올로기와 산업화시대의 한국시’로,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민주화운동과 해금시대의 한국시’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이데올로기와 산업화시대의 한국시’에 해당하는 장을 ‘①1960년대 시와 ②1970년대 시’로 세분화하고 ②항을 ‘산업화와 사회비판의 시’, ‘관념과 기법과 정서’로 나누어 기술한다. 한편 ‘민주화운동과 해금시대의 한국시’에서는 권영민이 세분화한 목차를 그대로 수용하여 ‘①민중시와 민중적 상상력 ②관념과 기법과 정서 ③시와 경험적 진실성’을 세부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권영민의 문학사를 수용하면서도 시기구분을 달리함에 따라 서술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술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두 문학사가 시기구분을 다르게 한 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의 이면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구분하고 산업화에 비해 민주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서술의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구분과 서술내용으로 볼 때, 저자는 산업화시기에는 사회비판의 시가 우위에 놓이고 민주화시기에는 민중시가 우위에 놓인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시기 모두에서 다양한 시적 실험과 경향을 지닌 시도들을 ‘관념과 기법과 정서’라는 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새로운 시도로 동일하게 기술함으로써, 각 시기의 주요 경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전유의 적절성 여부는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문화횡단의 과정에서 생겨난 이러한 변화가 한국근현대문학의 사적 변화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2. 허젠후아(何镇华)의 『朝鮮现代文学史』 분석

허젠후아¹⁵⁾의 『조선현대문학사』는 기본적으로 북한문학사의 인식과 서

15) 한족 학자인 허젠후아는 1932년에 태어나 1956년에 북경대학 동양어문학과를

술방법을 수용하고 있다. 저자가 북한현대문학사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시각은, 반제와 반봉건을 근간으로 하면서 반자본주의와 반외세 애국주의에 중심이 놓여 있다. 저자는 이러한 기본 시각을 담아낼 미학적 원리로 사실주의를 문학사 전개의 중심원리로 삼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비판적 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현대문학사를 파악해 나간다.

이 책의 기본적인 서술체계를 보면 시기마다 문학 외적 시대상황과 문학의 전반적인 양상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주요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해당 시기 문학의 전개를 서술해 나가는 교재용 문학사의 일반적인 구성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연구용 문학사와는 달리 서술대상이 되는 작가를 최소화 하고 이들의 대표작에 관한 서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술 시기를 1900년부터 1967년까지로 설정하여 해방을 분기점으로 북한문학의 지속과 변화를 조망하고 있다. 각 장은 ‘역사배경과 문학개황’을 앞세우고 시기별로 중요도에 따라 주요 갈래와 작가 혹은 경향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19년에서 1930년대까지의 문학을 다룰 때에는, ‘제1절 역사적 배경과 문학개황, 제2절 산문, 제3절 시, 제4절 조명희와 그의 작품, 제5절 최서해와 그의 작품, 제6절 이상화와 그의 작품, 제7절 문학평론, 제8절 비판적 사실주의의 문학’의 순서로 기술하였다면, 1930에서 1945년까지의 문학을 다룰 때에는, ‘제1절 역사적 배경과 문학개황, 제2절 조선인 민항일무장투쟁을 반영한 작품, 제3절 소설과 희곡, 제4절 이기영과 그의 작품, 제5절 강경애와 그의 작품, 제6절 송영의 소설과 여타의 작가, 제7절 송영과 그의 극작, 제8절 시가, 제9절 프로문학과 부르주아 반동문학의 투쟁과 프로문학의 승리’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볼 때, 문학사의 서술체계는 각 시기별 문학사적 중요도로 기준을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체제로 기술하는 엄밀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시기별로 문학사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문학사

졸업한 후 동양어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3년에 사망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동방문학사』(공저), 『조선어교정1,2,3』(공저), 『동방신화와 전설』(공저)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조선단편소설집』, 『천세봉소설집』(공역) 등이 있다. 논저로는 『조선문학연구논문집』(1992)가 있으며 이 밖에도 『한조사전(漢朝辭典)』, 『조한사전(朝漢辭典)』 등의 집필에 참여하였다.

를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문학사는 해방을 기점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는데, 1부에서는 1900년부터 1945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하위 시기는 1900년부터 1919년의 문학, 1919년부터 1930년대까지의 문학, 1930년부터 1945년까지의 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2부에서는 1945년부터 1967년 5월까지를 다루는데, 하위 시기는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의 ‘평화민주건설시기’의 문학,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학, 1953년 7월부터 1958년 8월까지의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의 문학, 1958년 8월부터 1967년 5월까지의 ‘천리마운동과 7년 국민경제계획시기’의 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북한 건국 초기의 문학사인 과학원 문학연구실의 『조선문학통사(하)』¹⁶⁾와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1959년에 발간된 『조선문학통사(하)』에서 다룰 수 없었던 시기인 1960년대를 다루면서 1967년을 분기점으로 삼은 것은 1970년대 이후에 발간된 북한문학사의 시대구분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¹⁷⁾ 하지만 왜 이 시기까지를 현대문학사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이 주요 관점과 인식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선문학통사(하)』와 비교해 볼 때, 다소간의 추정이 가능하다. 『조선문학통사(하)』는 1930년대 문학을 서술하면서 ‘김일성원수의 항일투쟁과정에서의 문학’으로 소제목을 붙여 김일성을 부각시킨 반면, 허젠후아는 같은 내용을 ‘조선인민항일무장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 소제목을 제시하여 인민의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⁸⁾ 이처럼 저자는 김일성 미화에 치중하는 북한문학사의 경향을 피하면서 인민성과 혁명성을 결합해내는 시각을 견지한다. 이런 서술태도로 볼 때,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확립된 1967년까지의 문학을 서술대상으로

16) 해방 이후 북한에서 집필된 최초의 문학사는 대학의 교재용으로 집필된 안함광의 『조선문학사』(1956, 연변교육출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 문학사는 안함광의 문학사를 저본으로 삼아 집체창작을 거쳐 발간한 것이다.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하)』(1900~전후시기), 과학원출판사, 1959)

1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출판된 『조선문학사(전5권)』(1982)에서는 1967년 5월을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후 박종원·류만의 『조선문학개관Ⅱ』(사회과학출판사, 1986)에서도 1967년을 기점으로 삼았다.

18) 안함광의 『조선문학사』에서는 이 부분을 ‘김일성 원수가 지도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문학’으로 서술하고 있다.

삼은 것은 북한현대문학사의 흐름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포착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1967년 이후를 다루는 북한문학사의 시각이 주체문학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967년까지를 서술하기로 삼은 것은 저자가 북한문학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한 적극적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허편후아는 서술 시기를 1967년까지로 설정함으로써 김일성과 그의 가계를 둘러싼 항일혁명서사를 중심으로 주체문학으로 재편되어 가는 북한의 공식적 입장과 분명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북한문학사를 파악하는 방식은 북한의 입장과 동일하지만 항일혁명전통의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저자는 북한문학의 전개를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미학을 중심으로 두고 파악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북한문학사에서 강조하는 진보적인 문학이나 항일혁명문예도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미학으로 파악해 나간다. 그 일례로 이 문학사에서는 나도향을 프로문학에 속하지는 않지만 프로문학의 영향을 받으며 ‘자연주의와 감상주의의 창작세계에서 탈피하여 비판적 사실주의의 길’로 나간 작가로 평가한다. 저자의 이러한 인식은 나도향과 김소월을 ‘프롤레타리아문학 이외의 이 시기 진보적 문학’으로 평가한 『조선문학통사(하)』의 인식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들의 경향을 ‘비판적 사실주의의 문학’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다룸으로써, 나도향을 봉건제도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자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사회주의 사실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작가로 평가한다. 이러한 시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혁명적 문예운동의 전개라는 입장에서 중국현대문학사를 서술하는 중국 학계의 입장과 동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중국과 북한에서 문학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은 이처럼 동일하지만, 혁명문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북한이 김일성 가계의 항일혁명전통을 조작하여 통치의 정당성 확보의 일환으로 항일혁명문예를 기술하는 반면, 중국은 애국주의 입장에서 이를 기술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 문학사에는 중국과 북한의 교류가 강조되고 있다. 중국에서 집필된 북한문학사라는 특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저자는 중조 간 우애를 나눈 기억을 강조하고 이를 중요하게 서술한다. 저자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학'을 서술하면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¹⁹⁾, 이 시기의 문학 전반에서 중조 양국의 인민 간 연대를 다룬 작품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후기에서 이 책의 특징을 ‘중국과 조선의 인민들이 생사를 함께하고 환난을 같이하는 깊은 우정에 관한 작품에 대해 저자가 넘치는 열정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형상화하였다. 이것은 조선현대문학에 대한 다른 텍스트들이 가지지 못한 것’²⁰⁾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문학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 인민의 국제주의적 친선을 다룬 작품들에 대한 서술은 북한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분량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안함광이 『조선문학사』에서 ‘국제 친선을 테마로 한 작품’이라는 소제목으로 다룬 바 있고, 이후 『조선문학통사(하)』에서는 소제목으로 묶지는 않았지만 개별 장르의 문학적 전개를 서술하면서 중국인민지원군과의 연대에 주목한 바 있었다. 이와 비교할 때,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과 북한의 연대에 주목하며 양국 인민간의 동지애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 친선을 강조하는 초기 북한문학사의 기술 태도는 이후의 북한문학사에서 혁명성과 민족적 특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점차 삭제되거나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북한문학사의 경향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과 인민적 연대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중국에서 북한문학사를 쓴다는 저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견지하고 있다.

19) “중국의 각 사회단체는 연합선언을 발표하고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을 모집하여 파견함으로써 중국인민지원군을 참전하게 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협력작전으로, 38선 이북의 미국 침략군과 연합군은 38선 이남으로 퇴진하고, 3년이 넘는 처절한 싸움을 경험한 뒤 1953년 7월 27일에 전쟁은 끝났으며 중국과 조선 인민은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였다.”(허젠후아(何镇华), 『朝鲜现代文学史』, 中央编译出版社, 2008, 170쪽)

20) 허젠후아(何镇华), 위의 책, 291쪽.

3. 김병민(외)의 『조선-한국당대문학사』와 박은숙(외)의 『韩国-朝鮮近現代文學史』 분석

김병민(외)의 『조선-한국당대문학사』와 박은숙(외)의 『韩国-朝鮮近現代文學史』는 남북문학사의 시각과 내용을 결합한 대표적인 문학사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한국문학 교육현장에서는 남북한문학사를 동시에 인식하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조선-한국’ 혹은 ‘한국-조선’을 병기하는 교재형 문학사가 집필되고 있다. 남북한의 정부 수립 이후 개별적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문학사는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인식차이로 인해 이질성이 점점 심화되어 왔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남북문학사를 통일적으로 기술하는 일은 남북한 양자에게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남북한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 한민족이 한국어로 생산한 문학을 사적으로 조망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이 둘을 동시적으로 포착해내는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

김병민(외)의 경우, 해방지후부터 1980년대의 남북한문학을 대상으로 하며, 해방공간을 제외하고는 십년 단위로 북한문학과 남한문학을 대등하게 기술하고 있다. 소설, 시, 희곡이라는 주요 갈래를 중심으로 기술한 이 문학사에서는, 서술대상에 대한 용어 선택에 있어서 객관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문학의 생산 주체를 지칭함에 있어, 해방공간에서는 좌익과 우익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는 북쪽과 남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탈정치화된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문학사는 남북한 언어와는 다른 ‘중국 조선어’²¹⁾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표현상의 이질감은 있지만, 남북한문학을 중국 조선족의 시각으로 서술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문학사에서는 시기별 시대상황과 문학의 전개를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학발전개관’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고 각각의 소설문학과 시문학을 1과 2로 번호를 붙여 북한과 남한의 문학사를 순차적으로 기술하였다. 분량 면

21)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근대 한국어를 근간으로 하면서 한국어와 북한어 및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언어로 남북한 언어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이상혁,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몇 가지 문제」, 『한중인문학연구』, 제 39집, 2013, 49-70쪽, 참조)

에서 소설과 시보다 소략한 희곡문학의 경우, 같은 절에서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북한과 남한의 희곡사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해방직후와 1950년대는 작가 중심으로 기술하다가 1960년대부터는 북한문학의 경우, 주제별로 나누어 해당 경향의 작품 중심으로 기술하고 남한문학의 경우, 작품과 작가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술태도는 대체로 남북한의 시각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 문학사가 일관되고 고유한 관점을 드러낸 문학사 기술을 목표로 삼았다기보다는 남북한의 문학사를 대등하게 서술하려는 시도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을 보이는 것은 중국의 역사적 정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문학계는 1980년대에 새로운 문학사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른 바 ‘重寫文學史’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된 이 흐름은 천안문 사태 이후 일련의 정치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논의의 물꼬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하겠다.²²⁾ 동일한 이유로 외국문학사 또한 하나의 관점을 갖고 기술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학사는 사회주의현실과 자본주의현실이라는 체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언어의 공통성으로 인해 공유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지 못한 채, 남북문학사를 동시에 조망한다는 의의를 넘어서는 지평융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박은숙(외)의 『韩国-朝鮮近現代文學史』는 남한문학사의 시각과 내용을 우위에 놓은 문학사이다. 교재용 문학사로 쓴 이 책은 개화기부터 1970년대 문학까지를 서술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개화기를 제외하고는 십년 단위로 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1940년대까지는 남한문학사의 시각과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남북한문학사를 함께 서술하고 있다. 남북문학사를 동시에 서술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각이나 내용은 남한문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문학은 남한문학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었다. 예를 들어 1940년대까지의 문학사의 주체를 한국으로 호명하고 있다는 점이나 근대의 기점논의를 기술하면서 갑오경장 기점설, 영정조 기점설, 3·1운동 기점설, 한일합

22) 이도연, 「1980년대 주요 중국문학사의 서술 시각 분석」, 『중국인문과학』 35, 중국인문학회, 2007, 297-230쪽, 참고.

방 기점설 등 남한 국문학계의 논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논의는 “이외에 조선의 1866년 설이 있는데 이는 조선의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정치적 요구, 즉 조선 역사의 내재적 발전에서 반봉건보다는 반침략에 더 비중을 둔 문학사 단계 설정으로 인식된다.”²³⁾라고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에서 이러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서술체계를 살펴보면, 시기별 시대상황과 문학개관을 앞세우고 주요 갈래인 시, 소설, 비평의 전개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문학개관에서는 시기별 문학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하위 절에서는 해당 갈래의 시기별 특징을 언급하였으며 남한문학의 경우, 주요 작가별로 서술하고 북한문학의 경우, 주제별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학사에는 남한문학과 남북문학의 이질성으로 인해 서술상의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문학에 대한 기술에서 균열의 정황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먼저, 장과 절의 제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체적인 장의 제목은 “1960년대의 문학-새 시대의 충격과 순수·참여의 대립”이며 하위 절의 제목은 ①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 그 시대 문학 개관 ②1960년대의 시문학-민족현실에 대한 관심 ③1960년대의 소설문학-새 시대의 충격과 전후문학의 극복 ④1960년대의 비평문학-순수·참여 논의로 제시되어 있다. 1절의 제목으로 판단할 때, 여기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인 시대상황으로 언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기술 내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남한의 경우,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을 서술하고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서 제목과 내용이 정합성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균열은 다음의 언급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남한이 중국과는 다른 자본주의체제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3세계 나라들의 내부에는 부유한 엘리트와 나머지 주민들 사이의 더욱 큰 수입 격차를 보이며, 근본적으로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 지출을 정치적으로 꺼린다는 특징이 있다. 부익부를 누리는 사람 이면에 존재하던 수많은 타자들은 국가의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²⁴⁾

23) 박은숙(위), 『韩国-朝鮮近代文学史』, 外国教育与研究出版社, 2016, 4쪽.

이 문학사가 대체로 남북한의 상황에 대한 사실차원의 내용 제시로 문학사를 서술해 나간 반면에 위의 인용문에서는 당대 한국사회의 모순을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남한의 현실에 대한 강조는 체제의 내적 모순으로 기술하지만 북한문학에 대한 설명에서는 체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문학에 대한 기술은 “현실문제를 문학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기에 문학의 짐이 너무 무거워 미적인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다”²⁵⁾는 비판적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런 서술태도는 1950년대 문학을 정리하면서 북한문학이 긍정적 인물묘사로 노동자와 농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그렸다는 점과 남한문학이 암울하고 우울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대비시키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북한문학이 중국문학과 유사성이 높아 비교문학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²⁶⁾ 이처럼 이 문학사의 전반적인 시각은 남한문학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체제와 관련된 서술이나 미학적 특질에 대해서는 북한문학의 경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균열을 보인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남한문학사의 내용을 주로 하면서도 북한문학사를 수용하다보니 적지 않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극문학은 이 책의 전반적인 서술체계에서는 다루지 않은 갈래였으나 1960년대 북한문학에 있어서 극문학은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문학개관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즉 북한문학에서 중시되는 극문학을 언급하려다 보니 남한문학의 극문학에 대해서도 서술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균열은 시기별로 전개양상을 살피고 있는 비평문학의 경우, 남한문학사만을 수용하고 북한문학사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지 않은 점에서도 발견된다.

이처럼 이 문학사는 다섯 명의 집필진이 전반적인 체계를 논의하여 통일성을 갖고 저술하고자 노력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개별 집필자의 시각과 서술태도에 따라 상이한 면이 적지 않다. 또한 참고 텍스트도 장별 집필자에 따라 달라서 문학사 텍스트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횡단의 구체적인 양상을

24) 위의 책, 358쪽.

25) 위의 책, 304쪽.

26) 위의 책, 351쪽, 참조.

논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남한문학사의 경우,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를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러하다. 다만, 남북문학을 남한의 시각에서 기술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연대의식이 정치적 무의식으로 자리하고 있음에 따라, 의도와는 다른 균열과 변이를 보여준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IV. 결론

문화는 이동과 상호접촉을 통해 새로운 맥락과 의미를 획득한다. 오늘날 문화의 이동과 교류가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문화 간 만남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의미들이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가능성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간 문화횡단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의미들은 문화횡단의 동력으로 기능하면서 일국사적 시각 안에 갇힌 우리의 인식에 균열을 내며 보다 생산적인 사유지평으로 우리를 견인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근현대문학사를 살펴보면, 우리문학사 인식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전언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근현대문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서양문학의 유입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문학의 영향은 배제되거나 도외시되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중국의 한국근현대문학사에서는 이러한 인식 방법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중국문학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중화주의적 사고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제국주의적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중국문학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낼 필요는 충분하며, 이러한 인식은 한문학이 신문학과 갖는 연관성을 문학사에서 복원하는 일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문학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는 측면이 있다. 남북한 공통의 문학사 기술은 통일문학사에 대한 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하나의 관점으로 남북문학사를 기술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각기 시대별 전개양상을 동시에 조망한다는 것은 이질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 진일보한 면이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문학사의 내재적 시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고 객관적으로 북한문학사를 서술하는 태도는 의미 있는 지점을 열어 보이기도 한다. 북한이 강조하는 김일성 가계의 영웅화나 사회주의적 도식성은 배제 혹은 약화시키면서 서정성을 강조하고 항일을 통한 민족정신을 강조하는 점은, 공통의 문학사를 기술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하나의 열린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우리문학사 저술에 있어서 의미 있게 바라볼 지점은 순수문학 중심의 우리문학사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문학적 준거로 삼고 있고, 이는 문학의 대중성을 중시하는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가요와 영화, 인터넷문학 등 다양한 매체와 연관된 작품을 문학사에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문학이 지닌 순수문학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 내지는 시각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가 보여주는 이러한 의미의 잉여들은 우리문학사에 대한 다른 지평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우리문학사 저술은 민족국가의 경계 안에서 인식되던 우리문학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보다 정밀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화횡단의 양상을 다층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우리문학사를 가장 많이 저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인접국가에 위치하면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 중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촉발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중국 조선족의 역할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우리문학사 서술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한족과 조선족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저자들의 텍스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족이 자신들의 문학사를 서술하는 방식과 우리문학사 서술의 방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비교의 시각은 향후 보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병민, 『조선문학사 : 근대현대부분』, 연변대학출판사, 1994.
- 김병민 · 허휘훈 · 최용권 · 채미화, 『조선 · 한국당대문학사』, 연변대학출판부, 2000.
- _____, 『朝鮮 · 韩国当代文学史』, 昆仑出版社, 2004.
- 김영금, 『韩国的文学』, 北京大学出版社, 2008.
- _____, 『韩国文学简史』, 南开大学出版社, 2009.
- _____, 『朝鮮-韩国文学史』 上 · 下,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
- _____, 『新编韩国文学史』, 南开版精编国别文学史时系列, 南开大学出版社, 2016.
- 김춘선, 『한국조선당대문학사』, 민족출판사, 2000.
- 김춘선 외, 『한국현당대문학사』, 민족출판사, 2012.
- 리해산, 『조선한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1995.
- 리해산 · 채미화, 『남조선문학개관』, 연변인민출판사, 1992.
- 문일환, 『조선고전문학사』, 민족출판사, 1997.
- 박은숙 · 정봉희 · 이춘매 · 이 호 · 이광재, 『韩国-朝鮮近现代文学史』, 外国教育与研究出版社, 2016.
- 박충록, 『조선문학간사』, 연변교육출판사, 1987.
- 위옥승, 『朝鮮文学史』 上 · 下, 北京大学出版社, 1986.
- _____, 『韩国文学史』 (改訂版), 北京大学出版社, 2008.
- 윤운진 외, 『韩国文学史』,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08.
- _____, 『한국문학사요』, 연변대학출판사, 2015.
- 이 암 · 서건순 · 지수용 · 유성운, 『朝鮮文学通史』 上 · 中 · 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
- 임국용, 『한국문학약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3.
- 하진화, 『朝鮮现代文学史』, 中央编译出版社, 2008.
- 한위성, 『韩国文学简史与作品选读』,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06.

허문섭, 『조선고전학사』, 룡녕민족출판사, 1985.

허휘훈·채미화, 『조선문학사: 고대중세부분』, 연변대학출판사, 1998.

2. 논문 및 단행본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하)』, 과학원출판사, 195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2), 민음사, 2002.

김려숙·변귀송·박용학, 『조선문학사』 4(1953~1966),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김려숙·변귀송·신경균, 『조선문학사』 5(1967~1980),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리디아 리우, 민정기 역,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2005.

박종원·류 만, 『조선문학개관』Ⅱ(1926~1984), 사회과학출판사, 1986.

소인호, 「중국 조선문학사의 비교 연구: 서사문학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41집, 우리어문학회, 2011.

이등연, 「1980년대 주요 중국문학사의 서술 시각 분석」, 『중국인문과학』 35, 중국인문학회, 2007.

이상혁,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몇 가지 문제」, 『한중인문학연구』, 제39집, 2013.

이선이 외, 「중국의 한국문학사 저술 현황과 한국현대문학사 저술양상」, 『외국문학연구』 4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이승윤, 「한국문학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 『조선-한국당대문학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정현숙, 「북한, 중국, 일본의 한국현대문학사에 대한 인식(1)」, 『인문과학연구』 제21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천쓰허(陳思和), 노정은·박난영 역, 『中国当代文学史』, 문학동네, 1999.

토지문화재단 편,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한길사, 2003.

후양시우지(黃修己), 고대중국어문연구회 역, 『中国现代文学发展史』, 범우사, 1988.

❖ ABSTRACT

Transcultural Practice of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China

Lee, Sun-yi

This study compares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China with the history of South Korean literature,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national literature, explores aspects of narrative and therefore examines transcultural practice presented in such texts. There have hitherto been approximately 25 works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China, and 16 of 25 works are o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Regarding their purpose, the number of pedagogical works outstandingly exceeds the number of research works. In terms of perspective and contents, it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ne that only embraces the history of South Korean literature, another embracing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only and the other embracing the history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literature. This study has selected representative texts from each category and compared recognition and narrative aspects to that of the history of South Korean literature,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It further examines loci of definitions' transfer and formation as well. As a result, this study reveals valuable understanding of recognition and narra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First, this study offers an introspective attitude, as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ccentuates influence of only Western literature, overlooking influence of Chinese literature. Second, this study proposes a new narrative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Unified Korean literature through independent and objective identification of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Last, it emphasizes

popularization of literature – aside from pure literary-centrism – and expands possibilities of embracing distinct works relevant to multimedia.

Key Words :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published abroad, transcultural practic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literary history,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Korean studies

■ 논문접수일 : 2017. 8. 10

■ 심사완료일 : 2017. 8. 31

■ 게재확정일 : 2017. 9. 1

